전자신문	2003년 10월6일

VAN 단말기 업계 사활 'EMV' 인증 획득에 달렸다

신용카드조회(VAN) 단말기 업계에 제조업체 난립에 따른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의 '생존 코드'는 차세대 카드로 대세를 굳힌 스마트카드(IC카드) 지원과 제조원가 줄이기. 이 가운데 스마트카드 지원의 경우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발급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이를 지원하는데 관건이 될 차세대 금융서비스 국제표준인 'EMV' 인증획득 여부가 기업들의 사활문제가 되고 있다.

VAN단말기 제조업체들의 난립은 최근 1 2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출혈경쟁, 서비스 부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결제의 고재훈 이사는 "올해 VAN업계 경기가 안 좋아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EMV 단말기 등의 신규 수요가 있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몰릴 것"으로 진단했다.

◇ 시장 현황 및 전망=VAN 업체에 직접 제품을 납품하는 단말기 제조업체는 대략 50여개사로 추정된다. 한 해 평균 약 20만여대 미만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과열돼 있는 셈이다. 관련업계는 올해 신규 수요가 적었지만 내년부터 스마트카드 활성화와 현금 영수증 카드제 등이 도입되면 최소한 앞으로 1 2년 동안은 특수가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비트,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현재의 단말기로는 IC카드를 조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금 영수증 카드제 도입도 적어도 보급형 단말기 몇 십만대 정도 수요는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상욱 광우정보통신 사장은 "특수 규모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IC카드가 활성화되면 적어도 1 2년간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업체들도 이 때를 대비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과제=제조업체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EMV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현재는 한창 사이버넷 광우정보통신 등 일부 선두기업들만 EMV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조만간 10여개사가 추가로 EMV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EMV 단말기를 만들 수 없어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숙제다.

제조원가를 줄이는 것도 급하다.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는 데다 경쟁 업체도 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두업체인 사이버넷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업체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경쟁입찰을 늘리고 소모된 부품 부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채널과의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

금형비용 절감도 한 방법이다. 금형 비용을 뽑아내려면 적어도 4만여대 이상을 판매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1 2만대 공급도 쉽지 않다. 광우정보통신의 경우 중국의 금형비용이 국내에 비해 40 70%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이달 말 현지업체들을 방문할 계획이다.